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의 구강보건 행태에 관한 연구

장계원 · 박성숙¹

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 ¹대구과학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children's oral health behavio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Gye-Won Jang · Sung-Suk Park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Scienc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s oral health car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17 parents and their children who resided in rural communities in the region of K.

Methods :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from July 1 to 30, 2010. As for the survey on the children, the children who were in the lower grades were interviewed, and the upper graders filled out the questionnaires in person. A frequenc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and x²-test was utilized to grasp the links betwee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and the children's oral health care. A SPSS WIN 12.0 program was employed to analyze all the collected data.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Result : 1.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of the occupation of the parents to the children's regular dental checkup, the 71.8 percent of the entire children didn't get a dental checkup on a regular basis. The biggest percentage of the children of the self-employed parents(100%) got a regular dental checkup, and 90.9 percent of the children of the government workers did that($p < .05$). 2. As a result of checking the relationship of the occupation of the parents to the children's dental-caries experiences, 39.3 percent of the whole children had no such experiences. The largest percentage of the children of the company employees(51.9%) had dental-caries experiences($p < .05$). 3. Concerning the links between the academic credential of the parents and the children's toothbrushing method, the biggest percentage of the children(40.2%) brushed their teeth up and down. The largest rate of the children whose parents were high-school graduates(41.5%) brushed their teeth in that way($p < .05$). 4. Regarding the links between the toothbrushing time of the parents and the children's view, 43.6 percent found their parents to take good care of their teeth to make them clean. 60 percent whose parents brushed their teeth after having breakfast and dinner took the best view($p < .001$). 5. As for the oral-health education experiences of the parents and a time for the children's change of toothbrushes, 29.1 percent changed their toothbrushes every two months, and 29.1 percent did that not on a regular basis but when the bristles of their toothbrushes got

교신저자 : 박성숙 우) 702-723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1동 390번지 대구과학대학 치위생과
전화 : 053)320-1591 E-mail : ss2513@hanmail.net

※ 본 연구는 2010년도 대구과학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2010년 11월 8일 수정일-2010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2010년 12월 18일

bent($p < .05$).

Conclusions :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promote children's oral health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arents, children should be urged to get a regular dental checkup, and the development of oral-health education programs in which parents and children can participate together is urgently required.

Key word : oral health awareness, parents' behavior, toothbrushing

색인 : 구강건강인식, 부모의 행동, 잇솔질

1. 서론

아동의 구강보건행태란 아동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위와 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인 과정이라기 보다는 이차적인 문화적, 사회적, 심리학적 과정이라는 특성을 지닌다¹⁾. 아동의 신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이 되므로, 아동에 있어 자신의 내적 태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아동에게 제공되는 경험의 내용과 방법을 좌우하게 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 아동의 신념 및 행동에 토대가 되는 것은 부모의 의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학생의 치아우식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부모의 구강건강 지식, 구강건강 행위 및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 가정하여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아동에 대한 구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동의 구강관리에 대한 영향 요인과 유사했다³⁾. 초등학교 학령기는 구강질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 및 행동 양상들을 변화시켜 평생 동안 스스로 구강건강을 잘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⁴⁾.

치아우식증의 특성으로 볼 때 치아우식증은 일생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 서투른 잇솔질, 잦은 간식습관 및 조미된 음식 선호 등의 이유로 특히 학령기에 더욱 많이 발생된다⁵⁾.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아조직 결손은 재생이 안되고 학령기 아동의 치아관리와 보존은 저작기능과 정상교합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혼합치열기의 영구치 우식은 성인이 된 후 영구적 치아손실의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⁶⁾.

아동들에게 필요한 구강보건지식으로는 음식물의 저작이나 발음, 심미 등 치아의 기능, 불소 세치제의 작용,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등이 있다. 또한 혼합치열 아동에게 유치와 영구치의 중요성, 치아의 기능이 서로 다른 점과 치아명칭등의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⁷⁾.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가정에 속하며 가족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발달되어간다. 최초 교육의 장이라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환경의 주도적 요인은 부모라 할 수 있으며 가정의 지위환경이나 구조환경, 가정환경을 결정하는 것도 부모라고 생각되므로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크다⁸⁾.

아동의 치아관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담당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전달하여 가정에서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극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는 구강건강관리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부모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기본적인 아동의 치아관리에 대한 행동 및 방법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은 부모에 대한 모방이 강한 시기이므로 부모의 선행된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의 구강보건 행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 7월1일 부터 7월 30일까지 K지역

의 읍·면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 12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동의하에 각각 직접설문을 실시하여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117부를 표본으로 채택하였다. 자녀는 고학년의 경우 직접설문을 작성하고 저학년의 경우 부모 또는 조사자의 면담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부모와 자녀 각각 117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requency Analysis를 실시하였고,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자녀의 구강보건행동을 Chi-square(χ^2)를 통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과 정기검진 여부와 치아우식증 경험 여부를 조사하고,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서 자녀의 주관적인 유치관리의 중요도와 자녀의 잇솔질 방법을 ‘옆으로 닦는다’, ‘위아래 방향으로 닦는다’ ‘옆으로·위아래 방향으로 섞어서 닦는다’, ‘회전 하듯 손목을 돌리며 닦는다’, ‘일정하지 않다’로 조사하였다.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시기를 5가지 영역으로 ‘음식을 먹은 후마다 닦는다’, 아침·점심·저녁식사 후 닦는다, 아침·점심식사 후 닦는다, 아침·저녁 식사 후 닦는다,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고,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주관적인 견해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부모의 구강보건교육의 여부에 관해 자녀의 치과치료 경험 여부와 자녀의 주관적인 칫솔교체 시기를 ‘한달에 한번 교체한다’, ‘두달에 한번 교체한다’, ‘세달에 한번 교체한다’, ‘일정하게 교체하지 않고 솔이 많이 휘어진 경우 교체한다’, ‘교체하지 않는다’, ‘잘모르겠다’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정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성적

3.1.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인 부모의 연령은 30-39세가 51.3%로 가장 높고, 성별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87.2%, 직업

은 주부가 39.3%로 가장 높았다.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대학교 졸업자가 59.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35%로 나타났다. 잇솔질 시기는 70.1%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로 가장 높았고 구강보건교육경험 여부에 관하여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32.5%, 없는 사람이 67.5%로 나타났으며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표1>과 같다.

3.2.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자녀의 일반적인 특징은 10세 이하가 47%로 가장 높고 12세가 16.2%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40.2%, 여자는 59.8%로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표2>와 같다.

3.3.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과 정기검진 여부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과 정기검진경험 여부에 관한 결과 치과정기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71.8%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자녀의 경우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 자녀의 경우 90.9%,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는 85.7%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표3>.

3.4.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증 경험여부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자녀들의 치아우식증 경험여부에 대하여 주관적인 조사 결과 전체 39.3%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원의 자녀 51.9%, 주부의 자녀 50%, 자영업자의 자녀는 33.3%가 치과 정기검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표 4>.

3.5.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의 유치관리 중요성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자녀의 유치관리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24.8%가 ‘유치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부모가 대학교 졸업자 자녀의 경우 28.6%, 고등학교 졸업자 자녀의 경우 22%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의 유치관리 중

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e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20-29years old	9	7.7
	30-39years old	60	51.3
	40-49years old	40	34.2
	50-59years old	7	6.0
	More than 60years old	1	0.9
Sex	Male	15	12.8
	Female	102	87.2
Job	Civil servants(teachers)	11	9.4
	Agriculture	7	6.0
	Businessman	27	23.1
	Housewife	46	39.3
	Self-employed	12	10.3
	Services	12	10.3
	Other	2	1.7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	1.7
	High school graduate	41	35.0
	University graduate	70	59.8
	More graduate	3	2.6
	Other	1	0.9
Smoking	Smoking	9	7.7
	NO smoking	108	93.3
Toothbrushing time	After every meal	16	13.7
	After breakfast, lunch and dinner	82	70.1
	After breakfast, lunch	4	3.4
	After breakfast, dinner	15	12.8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38	32.5
	No	79	67.5
Total		117	100.0

표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rea	Division	Frequency	%
Age	10years old	55	47.0
	11years old	17	14.5
	12years old	19	16.2
	13years old	10	8.5
	14years old	5	4.3
	More 15years old	11	9.4
Sex	Male	47	40.2
	Female	70	59.8
Total		117	100.0

표 3. Child's dental checkup according to the parent's job

Unit: Number(%)

Parental Occupation	Child's dental regularly dental checkup		Total	$\chi^2(p)$
	Regularly	Not regularly		
Civil servants (teachers)	1(9.1)	10(90.9)	11(100)	15.056 (0.020*)
Agriculture	1(4.3)	6(85.7)	7(100)	
Businessman	11(40.7)	16(5.3)	27(100)	
Housewife	15(32.6)	31(67.4)	46(100)	
Self-employed	0(0)	12(100.0)	12(100)	
Services	3(25.0)	9(75.0)	12(100)	
Other	2(1.7)	0(0)	2(100)	
Total	33(28.2)	84(71.8)	117(100.0)	

* $p < .05$

표 4. Child's subjective experience caries tooth according to the parent's job

Unit: Number(%)

Parental Occupation	Child's subjective experience of tooth decay			Total	$\chi^2(p)$
	Experience	No experience	Don't know		
Civil servants (teachers)	5(45.5)	2(18.2)	4(36.4)	11(100.0)	23.250a (0.026*)
Agriculture	2(28.6)	1(14.3)	4(57.1)	7(100.0)	
Businessman	11(40.7)	14(51.9)	2(7.4)	27(100.0)	
Housewife	10(21.7)	23(50.0)	13(28.3)	46(100.0)	
Self-employed	3(25.0)	4(33.3)	5(41.7)	12(100.0)	
Services	7(58.3)	2(16.7)	3(25.0)	12(100.0)	
Other	2(100.0)	0(0.0)	0(0.0)	2(100.0)	
Total	40(34.2)	46(39.3)	31(26.5)	117(100.0)	

* $p < .05$

표 5. Importance of managing the child's teeth according to education of parents

Unit: Number(%)

Parental education	Attract the importance of managing					Total	$\chi^2(p)$
	Very important	Some important	Usually	Not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Middle school graduate	1(50.0)	1(50.0)	0(0.0)	0(0.0)	0(0.0)	2(100.0)	15.807 (0.407)
High school graduate	12(29.3)	7(17.1)	8(19.5)	5(12.2)	9(22.0)	41(100.0)	
University graduate	14(20.0)	16(22.9)	11(15.7%)	9(12.9)	20(28.6)	70(100.0)	
More graduate	1(33.3)	2(66.7)	0(0.0)	0(0.0)	0(0.0)	3(100.0)	
Other	0(0.0)	0(0.0)	0(0.0)	1(100.0)	0(0.0)	1(100.0)	
Total	28(23.9)	26(22.2)	19(16.2)	15(12.8)	29(24.8)	117(100.0)	

요소에서 통계적 의미가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3.6.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방법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방법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 40.2%는 '위·아래로 닦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대학교이상 졸업자의 자녀 100%, 중학교 졸업자의 50% 고등학교 졸업자의 41.5%의 자녀가 위·아래로 닦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표 6>.

3.7.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시기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시기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65.8%가 아침·점심·저녁식사 후에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아침·점심 후 잇솔질을 하는 경우 자녀는 아침·점심·저녁 후 잇솔질을 하는 것이 75%, 부모가 아침·저녁 후 잇솔질을 하는 경우의 자녀는 아침·점심·저녁 후 잇솔질을 하는 것이 73.3%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7>.

표 6. Child's toothbrushing according to parents' education

Unit: Number(%)

Parental education	Child's tooth brushing method					Total	$\chi^2(p)$
	Brushing right and left	Brushing up and down	Brushing right to left and up to down	Brushing rotation wrist	Not regularly		
Middle school graduate	0(0.0)	1(50.0)	0(0.0)	1(50.0)	0(0.0%)	2(100.0)	30.414 (0.016*)
High school graduate	5(12.2)	17(41.5)	8(19.5)	4(9.8)	7(17.1)	41(100.0)	
University graduate	4(5.7)	26(37.1)	31(44.3)	5(7.1)	4(5.7)	70(100.0)	
More graduate	0(0.0)	3(100.0)	0(0.0)	0(0.0)	0(0.0)	3(100.0)	
Other	1(100.0)	0(0.0)	0(0.0)	0(0.0)	0(0.0)	1(100.0)	
Total	10(8.5)	47(40.2)	39(33.3)	10(8.5)	11(9.4)	117(100.0)	

* $p < .05$

표 7. Child's toothbrushing time period according to the parents

Unit: Number(%)

Parents tooth brushing time	Child's toothbrushing time					Total	$\chi^2(p)$
	After every meal	After break-fast, lunch and dinner	After break-fast, lunch	After break-fast, dinner	Other		
After every meal	5(31.3)	7(43.8)	0(0)	4(25.0)	0(0.0)	16(100.0)	11.478 (0.244)
After breakfast, lunch and dinner	8(9.8)	56(68.3)	0(0)	15(18.3)	3(3.7)	82(100.0)	
After breakfast, lunch	0(0.0)	3(75.0)	0(0)	1(25.0)	0(0.0)	4(100.0)	
After breakfast, dinner	0(0.0)	11(73.3)	0(0)	4(26.7)	0(0.0)	15(100.0)	
Total	13(11.1)	77(65.8)	0(0)	24(20.5)	3(2.6)	117(100.0)	

3.8.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견해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라 자녀의 주관적인 견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43.6%가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관해 부모가 치아를 청결히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부모가 '음식을 먹은 후마다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의 자녀 68.8%가 '부모가 매우 청결히 치아를 관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침·점심 식사 후에만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한 부모의 자녀 50%는 '부모가 치아를 청결히 관리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였다(표 8).

3.9.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자녀의 치과치료경험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에 따른 자녀의 치과치료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치과치료경험이 있는 사

람은 전체 53.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자녀 52.6%는 치과치료 경험이었으며 47.4%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9).

3.10.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칫솔교체 시기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여부에 따라 자녀의 주관적인 칫솔교체 시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 두달에 한번 칫솔을 교체하는 경우와 일정하게 교체하지 않고 솔이 많이 휘어진 경우 교체하는 경우가 전체 29.1%가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39.5%가 한달에 한번 칫솔을 교체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두달에 한번 교체하는 경우가 23.7%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 < .05$)를 보였다(표 10).

표 8. Child's subjective opinion according to the parents toothbrushing time period Unit: Number(%)

Parents tooth brushing time	Toothbrushing and opinions about the parents					$\chi^2(p)$
	Keeping parent's teeth very clean	Keeping parent's teeth clean	usually	Do not parent's teeth clean	Do not parent's teeth very clean	
After every meal	11(68.8)	4(25.0)	1(6.3)	0(0.0)	0(0.0)	16(100.0)
After breakfast, lunch and dinner	20(24.4)	38(46.3)	19(23.2)	3(3.7)	2(2.4)	82(100.0)
After breakfast, lunch	1(25.0)	0(0.0)	1(25.0)	2(50.0)	0(0.0)	4(100.0)
After breakfast, dinner	2(13.3)	9(60.0)	4(26.7)	0(0.0)	0(0.0)	15(100.0)
Total	34(29.1)	51(43.6)	25(21.4)	5(4.3)	2(1.7)	117(100.0)

*** $p < .001$, ** $p < .01$, * $p < .05$

표 9. Child's experience dental care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s

Unit: Number(%)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Dental treatment experience			$\chi^2(p)$
	Yes	No	Total	
Yes	20(52.6)	18(47.4)	38(100.0)	0.033
No	43(54.4)	36(45.6)	79(100.0)	(0.855)
Total	63(53.8)	54(46.2)	117(100.0)	

표 10. Child's subjective toothbrush replacement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of parents Unit: Number(%)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Toothbrush replacement					Don't No	Can't replace	Total	$\chi^2(p)$
	At intervals of one month to replace	At intervals of two month to replace	At intervals of three month to replace	The amount of the toothbrush does not schedule a lot to replace if bent					
Yes	15(39.5)	9(23.7)	5(13.2)	8(21.1)		1(2.6)	0(0.0)	38(100.0)	14.689 (0.012*)
No	8(10.1)	25(31.6)	14(17.7)	26(32.9)		4(5.1)	2(2.5)	79(100.0)	
Total	23(19.7)	34(29.1)	19(16.2)	34(29.1)		5(4.3)	2(1.7)	117(100.0)	

* $p < .05$

4. 총괄 및 고안

구강건강은 총체적인 건강관리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오늘날 총괄적 건강개념의 차원에서 고려할 때 구강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치아이다⁹⁾.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령기는 기존의 유치가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로서 일생동안 구강건강의 기틀이 이루어지며, 주요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부정교합이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¹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요한 시기로서 인간의 발달과정 중 성장 발육이 왕성하고 영양소의 요구량이 상당히 증가되며,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단계로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¹¹⁾.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는 자녀의 구강건강관리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머니의 구강지식은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¹²⁾.

본 연구에서 부모의 일반적인 특징을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먼저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과 검진과의 관계와 치아우식증 경험여부를 나누었다.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평소 시간을 내어 자녀의 치아 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데리고 치과정기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71.8%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28.2%가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안동¹³⁾의 연구에서 부모가 취업 중인 사람이 예방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 방문자율에서

취업중인 사람의 방문자가 33.8%, 비방문자가 64.9%, 미취업자는 방문경험이 있는 사람이 31.1%, 없는 사람이 37.4%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역이 읍·면인 점을 감안 할 때 시·도 지역의 부모 보다 치아 정기검진에 소홀한 지리적 여건도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증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자녀의 치아우식증 경험이 없는 사람이 39.3%, 경험이 있는 사람이 34.2%로 나타났고 공무원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가 치아우식증 경험이 '있다'가 높게 나타났고, 주부와 회사원의 자녀가 치아우식증 경험이 '없다'는 것이 높게 조사되었다. 이것은 검진을 받지 않아 치아우식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녀가 특별히 치아에 관한 불편함을 제시하지 않아 부모의 관리가 부족했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른 자녀의 유치관리에 관한 중요도에서 자녀들은 '유치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다'가 2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매우 중요하다' 23.9%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녀 29.3%는 '유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교 졸업자의 자녀 중에서는 28.6%가 '매우 중요하지 않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최¹⁴⁾의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학생의 구강보건차이에서 10점을 기준으로 구강보건지식이 중졸이하일 때 6.31, 고졸 6.44, 전졸 6.64, 대졸이상인 6.67로 부모의 교육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녀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정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자 연령 중 저학년의 비중이 높아 유치에 관한 정확한 인 인지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40.2%가 위아래 방향으로 닦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자녀는 41.5%가 '위아래 방향으로 닦는다'가 가장 높았고, 대학교 졸업자의 자녀는 '좌우·위아래 방향으로 섞어서 닦는다'가 44.3%로 가장 높고, '위아래 방향으로 닦는다'가 37.1%, '손목을 회전하듯 닦는다'의 회전법으로 잇솔질을 하는 경우는 7.1%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김¹⁵⁾의 연구에서 자녀들이 '잇솔질을 옆으로 할 때 이가 가장 깨끗하다'는 질문에 4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아니다'가 56.7%로 나타나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좌우로 하는 잇솔질을 깨끗하게 닦는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나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시기에 관해서는 65.8%가 '아침·점심·저녁식사 후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매 음식을 먹은 후 잇솔질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31.3%가 '매 음식을 먹은 후 잇솔질을 한다'고 하였고, 아침·점심·저녁식사 후 잇솔질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68.3%가 부모와 동일한 시기에 잇솔질을 한다고 나타났다. 아침·저녁식사 후에 잇솔질을 하는 부모의 자녀 26.7%도 부모와 동일한 시기에 잇솔질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부모의 구강관리 행위는 자녀의 구강건강관리 행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¹⁶⁾ 양육자 및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에 대한 가치관과 지식, 그리고 태도는 자녀의 구강건강유지 및 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¹⁷⁾는 것과 같다.

또한 부모의 잇솔질 방법에 따른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43.6%가 '부모가 치아관리를 청결히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9.1%가 '매우 치아관리를 청결히 한다'고 조사되었다. 매 음식을 먹은 후마다 잇솔질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68.8%가 '부모가 치아관리를 매우 잘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아침·점심·저녁 식사 후 잇솔질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46.3%가 '부모가 치아관리를 청결히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침·점심 식사 후에만 잇솔질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치아를 청결히 하지 않는다'가 50%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잇솔질을 자주 하는 경우 자녀 역시 '부모가 치아를 매우 청결히 관리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부모의 행동적인 실천도를 자녀가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모의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자녀의 치과치료 경험에 대하여서는 전체 53.8%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부모의 자녀 52.6%가 치과치료 경험이 있었고 경험이 없는자의 자녀는 54.4%가 치과치료 경험이 있었다. 부모의 구강보건교육경험여부에 따른 자녀들의 칫솔교환시기에 대한 인식조사에는 전체 29.1%가 '칫솔을 두 달에 한번 교체한다'와 '일정하지 않고 칫솔이 많이 휘어진 경우에 교체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달에 한번 교체한다'고 인식한 자녀는 19.7%가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칫솔을 '한 달에 한번 교체한다'가 39.5%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강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의 자녀는 32.9%가 '일정하지 않고 칫솔이 많이 휘어진 경우 교체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녀가 칫솔의 교체시기를 치과에서 권장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은 칫솔의 교체시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실제로 박과 김¹²⁾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구강보건 지식 및 행동에 따른 미취학 아동들의 치아우식증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이 높을 수록 예방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고 자녀에게 구강보건 중요성 교육을 자주 하거나, 치과방문을 자주 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녀의 치아우식증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가정에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바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며 자녀의 생육환경을 제공하고 사회화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모형이 되고 동일화의 대상이 되며, 자녀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 유지한다¹⁸⁾. 부모의 지식은 자녀들의 지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는 일반적인 생활의 규칙 및 습관을 부모를 모델로 형성해 간다. 이에 부모들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원인을 충분히 인식하고 구강보건에 관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행동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하여 본인의 올바른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모와 아동에게 맞는 구강보건교육 자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건강향상을 위해서는 구강보건의식과 행태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구강건강과 관련된 행위를 변화시키고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양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¹⁹⁾. 아동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동은 부모의 행동에서 기초가 되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생시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치아관리법이 성인기의 구강보건행동을 결정하는 시기인 만큼 자녀가 올바른 구강보건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인식 및 행동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구강보건정책사업을 시행할 경우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거주지의 지리적인 여건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이 편중된 부분이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10년 7월1일 부터 7월30일까지 K지역의 읍·면에 거주하는 117명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하에 직접설문을 하였다. 자녀는 저학년의 경우 면담을 통하여 설문을 조사하고 고학년의 경우 직접설문을 작성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인 특징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보호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녀의 세부적인 구강보건행태를 Chi-square(χ^2)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SPSS WIN 12.0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과정기 검진 결과 전체 71.8%는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 자녀의 경우 100%, 공무원 자녀의 경우가 90.9%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2. 부모의 직업에 따른 자녀의 치아우식증 경험에 관한 결과 전체 39.3%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사원 자녀 51.9%가 치아우식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3.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른 자녀의 잇솔질 방법에 관한 결과 전체 40.2%는 위아래 방향으로 잇솔질 하는 경우로 나타났고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4. 부모의 잇솔질 시기에 따른 자녀의 견해는 전체 43.6%가 부모가 치아를 청결히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침·저녁 식사 후 잇솔질하는 부모의 자녀 60%가 부모가 치아를 청결히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5. 부모의 구강보건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칫솔교체 시기 결과 전체 29.1%가 두 달에 한번 칫솔을 교체하는 경우와 일정하게 교체하지 않고 솔이 많이 휘어진 경우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있는 부모의 경우 39.5%가 한 달에 한번 칫솔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부모의 특성에 따라 자녀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참고문헌

- 공만석, 이흥석, 김수남. 어머니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과 아동의 구강보건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4;18(1):84-94.
- 김경혜. 자녀의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2003.
- 우승현. 어머니의 구강건강 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 행위와의 관련성[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 전보혜. 아동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관리 행위에 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6.
- 조갑숙.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구강보건제도에 관한 연구 - 학교계속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부산: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이혜경, 박정순, 김미정.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전에 관한 지식과 행동의 상관관계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8;8(3):155-161.
- 최은미. 초등학교 아동의 구강보건교육 방법에 따른 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1997.
- 노영운. 아동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전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김언희. 소아환자의 구강보건실태와 예방치료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석사학위논문]. 대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2006.
- 강분자, 송경희.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6;2(3):201-206.
- 김은희. 마산 창원지역 초등학교의 식생활, 간식섭취에 및 치아우식 실태조사[석사학위논문]. 창원: 창원대학교; 2007.
- 박향숙, 김진수. 유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부모의 구강건강 인식도 조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7;7(3):135-139.
- 안용순, 김은숙, 임도선, 정세환, 이흥재. 성남시 어린이집 원아 어머니의 구강보건의식과 행태에 관한조사 연구.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 2000;1(1):83-93.
- 최규범.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초등학교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부산: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 김연화. 울산시 초등학교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6;6(3):227-230.
- 강재경, 배수명, 송윤신의 2인. 아동의 치아건강에 관한 부모의 지식, 인식 및 태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9;33(4):564-574.
- 김영선, 석은조. 유아 구강보전에 관한 부모의 지식, 태도 및 행동.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4;10(2):27-36.
- 정용주.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7.
- 안용순. 성남시 12세 아동의 구강보건의식과 행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치위생과학회 2002;2(2):69-73.